

의원 21명 제4교섭단체 탄생... 원내교섭 목소리 커진다

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눈앞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회 지형이 '4개 교섭단체 체제'로 변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 국회가 '진보 대 보수'로 양분되면서 각종 쟁점을 놓고 명확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논의 직후 "적폐청산과 개혁이 국회에서 멈추지 않을 것을 타파하고, 촛불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당과의 협상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의당의 결정은 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에 따른 답변으로 양당은 이번 주부터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다만, 최 대변인은 "여러 전국위원회 당의 정체성, 지방선거에서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와 우려를 표했다"고 밝히, 최종 결정까지 난관이 남아있다.

일단, 양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3+3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공동교섭단체를 대표할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평화당에서는 장병완 원내대표와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최경환 대변인이,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원내대표와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김중태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두 당 모두 개헌과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원내교섭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휴'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교섭단체로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내일 '3+3 원내대표단 회의'

원내대표·상임위원장 배분 논의

개혁법안 등 처리 탄력받을 듯

다만, 공동교섭단체의 사령탑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몫을 정하는 데 있어 미묘한 견해차가 노출된 상태다. 평화당은 "꼭 말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자리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한 쪽이 대표를 맡으면 다른 쪽이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식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2개월씩 돌아가면서 맡고 교섭단체 출범 후 첫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가져와야 한다' 등의 조건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회 회의 및 공식문건 등에 기재할 공동교섭단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한시적'이라고만 정한 공동교섭단체의 구체적인 활동기간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협상에 성공해 양당이 예정대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에, 공동교섭단체 구성 시 참여하기로 한 무소속 이영호 의원까지 합쳐 21석을 가진 새로운 교섭단체 등장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현행 3개 교섭단체 체제는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 실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천해성 통일부 차관. /연합뉴스

협상의 양상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새 공동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범(凡)진보'와 한국당·바른미래당을 축으로 하는 '범보수'가 대립하면서 구도가 오히려 단순명료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북서 북미까지... 文대통령 숨가쁜 정상외교

앞으로 두 달이 한반도 명운 가를 골든타임

중·일과 조기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군사 긴장완화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남북정상 회담을 시작으로 5월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숨 가쁜 정상외교를 이어간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남북 간 고위급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한미는 물론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두 달이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골든타임'으로 떠올랐다.

비록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중재' 차원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만 보면 다면 문 대통령으로서 한 달이라는 시기에 최대 5차례의 정상회담을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을 펼쳐야 하는 셈이다.

'남북에서 시작해 북미로 끝나는' 일련의 정상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

축으로 요약된다. 청와대도 이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이슈를 비롯한 여러 남북 간 현안을 뒤로하고 오직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외교의 하이라이프는 북미정상회담이고, 북미 간 유일한 이슈가 바로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제인 만큼 문 대통령도 이에 맞춰 연쇄 정상외교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 대통령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지난 16일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상회담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임 실장은 16일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는 담판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의 물꼬를 튼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만나 '사전 정지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시점에서 '징검다리' 성격의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장담할 수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은 것"이라면서도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 그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쇄 정상외교 일정도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악관이 이를 일축하고 '5월 북미회담 불발' 입장을 다시 강조함에 따라 남북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을 위해 조만간 본격적인 접촉에 나서는 것과 같이 북미도 다수의 채널을 통해 직접 접촉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임용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당무 복귀 일성 "인재영입에 집중"

서울시장 출마는 언급 피해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당 전체로 봐서 인재영입에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로, 당분간 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당무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이 이날 간담회에서 안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위해 당에 꼭 필요한 일은 인재영입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출마 의사를 접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지지도가 오르지 않자 안 위원장과 유승민 공동대표의 지방선거 출마로 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유 대표의 광역단체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현 지도부, 당원 모두 선당후사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모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당을 위해 가장 좋은지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답변만 했다.

또 안 위원장은 야권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내놓는 대신 "정당 지지가 아무리 높아도 인물이 깨끗하지 않거나 무능하면 지지 주권이 절대 뽑아주지 않는다"면서 "우리 당 후보를 보고 깨끗하고 유능하면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번 주 청년, 여성, 경제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본격적인 인재영입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이르면 20일께 '영입 인사 1호'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HanaPack

5월 징검다리 연휴

4월 28일(토), 5월 3일(목) 단 2회 운항!

무안↔하노이·하롱베이여행

공통 혜택 하롱베이 비경투어포함(\$50상당)

광주일보 전용혜택 룬당 과일바구니 1개 제공

*예약시 광주일보 고객임을 말씀해주셔야 전용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광고재래된 상품항정)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하나팩 AVPF10_A
얼리버드
하노이/하롱베이/엔뜨 5일
총 상품가격 **7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비엠텝 항공
🏨 무안-하롱베이(2)-엔뜨-하노이(1)-무안
🍷 전일정 4성급호텔 숙박,차맥 아식 제공 (성인인 1인)

하나팩 AVPF11_B
동반이동할인
하노이/하롱베이/닌빈 5일
총 상품가격 **9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비엠텝 항공
🏨 무안-하노이(2)-하롱베이(1)-무안
🍷 5성급호텔 1박숙박, 수상인형극, 정안관광 럭셔리크루즈+뷔페포함

하나팩 AVPF12_D
노쇼핑, 10명이상시 인솔자 동행
하노이/하롱베이/엔뜨 5일
총 상품가격 **1,3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 선택경비 있음

✈ 비엠텝 항공
🏨 무안-하노이(1)-엔뜨-하롱베이(2)-무안
🍷 전일정 5성급호텔 숙박, 센레스토랑, 스트릿가, 전신마사지 1시간, 럭셔리리조트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세탄 내용은 알람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과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탄 내용은 알람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 [비엠텝] 비엠텝 항공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일자 변경을 의의 합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016-00-0000-0000-0000 (중요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성급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장착/불만접수 16, 1577-1233/ARS 안내번호 020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체세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참수 권고 ●여행 금지 |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인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